

빈곤노인 가계의 경제적 상황변화와 소비욕구변화

- 복지정책적 논의를 중심으로 -

정 영 숙(대구대 교수)

I. 서 론

노년층의 인구분포는 출산을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절대적 비율에서 뿐 아니라 상대적 비율에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 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편입될 시기에 노년층의 인구분포는 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젊은 연령층의 핵가족 선호 경향과 노인 부양의식의 약화 등의 이유로 인해 전체 노인인구의 비율보다 노인가계의 비율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노년층 인구분포 변동은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령화가 사회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과 노인문제를 위한 정책 및 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연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반적인 소득수준 상승과 더불어 소득분포 구조도 바뀌고 있고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일부 노인들은 실질소득의 상승을 경험하면서 경제적 여건이 좋아진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노인의 경제적 여건이 다 좋은 것은 아니며, 아직도 다수의 많은 노인들이 빈곤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회적으로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노인은 두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한 집단은 빈곤계층에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빈곤계층에 근접한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 보건의료비나 주거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복지혜택에서는 제외된 집단이다. 또 다른 집단은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한 독거노인 집단으로 이들의 대부분이 빈곤계층에 속해 있다.¹⁾ 이들

1) Hurd, M. D., "Research on the Elderly: Economic Status, Retirement, and Consumption and Saving."

은 신체적 노화로 인한 건강약화와 질병문제를 안고 있으나 빈곤으로 인해 진료를 받을 수 없고 또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으로부터 간호나 보호를 받지 못하여 건강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 미래의 소비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므로 노인가계의 소비패턴의 특성과 본질을 규명하고 평가해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는 노인 소비생활의 가치와 그러한 소비생활이 형성되게 된 동인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노인가계의 소비행동은 그들의 목표와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표현결과이다. 노인가계의 소비행동 및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된 영역의 실태와 그 변화의 기본적인 골격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 및 맥락아래서 소비패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노인가계의 소비패턴은 소비생활에 대한 행위와 의식 그리고 그 변화를 단순히 소비지출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행동의 실태와 변화가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변화 내지는 변동과 어떤 관련아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노인가계의 소비패턴 특성은 복지정책에 대한 준거(standard of comparisons)를 제공해 주고 그러한 준거는 노인 소비생활의 질적인 면과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뿐만 아니라 노인가계의 소비패턴은 노인이 처한 과거와 현재의 상황, 필요, 선호 등에 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적 논점을 제공한다.

소비항목들은 노인의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에 근거하여 구조화되면서 하나의 패턴을 이룬다. 노인들의 소비욕구나 필요는 그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다. 즉 빈곤계층에 속하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은 소득력이나 구매력 자체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들의 필요와 욕구 역시 상이할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소비패턴 구조나 속성에 영향을 미쳐 각기 다른 소비패턴을 형성하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계의 경제적 상황변화에 따른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소비패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며, 특히 빈곤노인 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소비패턴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노인가계의 소비패턴이 경제적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규명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소비패턴 구조를 토대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연구배경

1. 소비항목의 상충작용과 경제적 복지

개인이나 가계의 소비수준이나 소비패턴의 구조적 측면은 복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개념은 상충작용(trade-off)으로 각각의 소비행동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거나 받는 가운데 형성되며 이러한 상충작용은 균형을 지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소비항목들간의 균형 및 조화는 소비수준 그 자체만큼이나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²⁾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가계의 경제적 상황변화로 인해 기존의 소비패턴이 이루고 있던 균형상태가 깨어져 불균형을 이룬다면 그것은 그 가계를 운영하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소비패턴이란 상호 연관된 소비항목들이 내재적으로 구조화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러한 소비패턴은 가계가 주어진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그들이 설정한 목표와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표현이다. 소비항목들간의 상충작용에 대한 연구³⁾⁴⁾에 의하면 가계의 소비는 다른 소비항목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상호 관련된 소비항목들로 구성되고 그러한 소비항목들은 결합하여 하나의 패턴을 이룬다. 즉 각 소비항목들은 통합된 전체의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소비의 한 제한 요소로서 가계의 소득을 고려해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주어진 소득 하에서 한 영역의 소비증가는 다른 소비영역에서의 감소에 의해 상쇄된다. 각각의 소비항목은 상호관계를 가지는 가운데 하나의 패턴으로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패턴은 소비생활에 대한 행위와 의식을 반영한다. Kyrk⁵⁾는 생활표준(standard of living)에 대한 추구는 소비행동의 근본적 기준이며, 가계의 생활표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비된 모든 재화와 용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러한 항목들이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가지는 지에 대해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Hoyt⁶⁾ 역시 생활표준을 소비패턴 형성의 기초로 그리고 하나의 유기체로서 각 소비항목의 원인이자 목적으로 보았다.

2) Magrabi, F.M., Chung, Y.S., Cha, S.S and Yang, S. *The Economics of Household Consumption*, New York: Praeger Publications, 1991.

3) Cha, S.S., *Consumption Patterns of Poor Household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1.

4) Abdel-Ghany, M. and Sharpe, D. L., "Consumption Patterns Among the Young-Old and Old-Old,"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1(1), 1997, pp. 90-112.

5) Kyrk, H., *Economic Problems of the Family*,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Publishers, 1929.

6) Hoyt, E.E., "A New Approach to Standards of Liv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51(2), 1959, pp. 83-86.

재화와 용역은 사용되는데 있어 상호보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 재화의 소비수준의 증가는 다른 재화의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제한된 자원으로 필요한 재화를 모두 구입할 수 없을 경우 한 소비항목은 다른 소비항목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소비항목들 간에는 상호 내재적 구조(integral interrelationship)를 가지므로 각 소비항목은 통합된 구조 내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분항목(component item)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어떤 소비항목도 완전히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소비경제학자들은 소비항목들간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할 때 가계는 주어진 경제적 제약 내에서 소비지출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기존의 소비패턴을 가족구성원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꿈으로써 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경제적 상황변동에 따른 욕구 및 필요의 변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한다. 노인가계의 필요와 욕구는 가족내의 경제적 변화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나 상황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노인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형태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건강상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경기변동으로 인해 자산가치의 감소, 물가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 실업문제 등에 직면할 수도 있다. 가계의 욕구와 필요는 소비가치가 생성되는 근원이므로 개인이나 가계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할 때 소비가치와 더불어 가계의 욕구나 필요도 변화한다. 예를 들어,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겨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 다른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료에 대한 필요나 욕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난방이나 연료에 대한 필요 역시 계절에 따라 다르다. 자산가치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에도 소비재화에 대한 욕구와 필요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

환경 및 경제적 상황변화로 인해 재화에 대한 상대적 욕구와 필요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 밖의 자원으로 충당하거나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비항목들 중에서 어떤 항목은 소득에 맞추어 조정이 가능한가 하면 조정이 불가능한 특성을 지닌 항목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에게 있어 보건의료비나 주거관련 공과금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정이 어려운 항목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노인들이 경제적 상황변화로 인해 일부 항목의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안되거나 조정이 쉽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 의문에 대해 변동예산을 적용한다는 추론이 있는가 하면 고정예산을 적용한다는 추론도 있다. 변동예산법(variable-budget strategy)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이 감소된 부분을 충당하여 기존의 소비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 저축한 돈으로 필요한 지출을 보충한다.
- 자산의 일부분을 처분하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여 필요한 소비욕구를 충족한다.
- 가윗일을 하거나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부수적 수입을 벌여 필요한 재화를 구입한다.

반면 고정예산법(fixed-budget strategy)은 소득이 감소된 만큼 아래에 제시된 방법으로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다.

- 식료품, 피복, 여가오락 등과 같이 조정이 가능한 지출을 줄여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지출로 충당한다.
- 필수재가 아니면 경제적 여유가 생길 때까지 구매를 보류하거나 다른 재화로 대체한다.

두 가지 대처방법 중 실지로 노인들이 어느 방법으로 조정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연구과제이다. 두 종류의 방법 중 노인가계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나 범위가 그리 넓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과 같은 고실업 시대에 중장년층도 아닌 노년층에 진입한 사람들이 가윗일을 하기 위한 고용기회 및 정보도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강문제, 기술부족, 노동시장에서의 노인에 대한 차별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방법도 경기악화로 인해 매매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처분할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불가능한 방법이다. 그리고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필요한 재화를 구입하는 것도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달에는 지불액만큼 소비수준을 줄여야 되므로 합리적인 방법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지출을 축소하여 조정이 불가능한 지출로 대체하거나 필수재적 특성을 지닌 항목이 아닐 경우에는 경제적 여유가 생길 때까지 구매를 보류하거나 다른 재화로 대체하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자료

분석자료는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에서 수집한 소비지출조사 자료(Consumer Expenditure Survey)이다. BLS에서는 매년 분기별로 5,000가구 이상을 면접하고 있으며, 자료를 수집할 때 전체 표본 중에서 80%는 4분기동안 계속 면접에 응한 동일가구이고

20%는 분기마다 교체한다. 본 연구에서는 4분기동안 면접에 응한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기별 표본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회귀분석 결과 : 식료품비

독립변인	전체노인가계				빈곤노인가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N(가구수)	400	407	385	390	86	104	95	102
보건의료비	-(**)	-(**)	n.s.	-(*)	-(*)	-(*)	-(**)	n.s.
주거관련 공과금	n.s.	n.s.	n.s.	+(*)	-(*)	-(*)	n.s.	-(*)
소득	+(**)	+(**)	+(**)	+(**)	+(**)	+(**)	+(**)	+(**)
Constant	126.18	176.49	281.33	136.84	20.06	37.28	0.06	24.89
R ²	0.44	0.35	0.43	0.39	0.43	0.62	0.53	0.53

*p < 0.05

**p < 0.001

주: +는 정적관계, -는 부적관계, n.s.는 유의하지 않음을 나타냄.

2. 변인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계의 경제적 상황변화에 따른 소비욕구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어 소비 항목별 특성에 중점을 두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소득감소나 욕구 및 필요에 변화가 생길 경우 소득감소분에 맞추어 조정해야 하지만 특성상 조정하기 힘든 소비항목으로 보건의료비와 주거관련 공과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종속변수는 비교적 조정이 가능한 항목들로서 식료품비, 피복비, 여가오락비 등이다. 일반적으로 보건의료비나 주거관련 공과금⁸⁾은 가격분산이 적은 항목들이므로 저소득가계는 의료비나 연료·난방비 등이 상승할 경우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치료를 연기하거나 연료·난방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식품, 피복, 여가활동 등과 같이 비교적 조정하기 쉬운 항목의 지출을 줄여 의료비나 주거비로 대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빈곤계층에서 가장 줄이기 쉬운 항목으로 알려진 것이 식료품이다.⁹⁾¹⁰⁾ 피복비 역시 조정 가능한 항목으로 간주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옷가지는 보유하고 있고 특히 노인들에게 있어

7) 1분기는 2월~4월(봄), 2분기는 5월~7월(여름), 3분기는 9월~10월(가을), 4분기는 11월~1월(겨울)을 나타낸다.

8) 주거관련 공과금에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난방, 연료비 등이 포함됨.

9) Myers, L.H., "Outlook for Food Consumption Patterns, *Family Economic Review*, 2, 1985, pp. 26-28

10) Magrabi, et al, 전게서, 1990.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경우 피복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 중요도가 작은 항목이기 때문이다.¹¹⁾ 빈곤가계는 빈곤선(poverty income guidelines)과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오산스키(Orshansky)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3인 이상가구의 앵겔계수가 1/2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최저한의 식비를 계산한 뒤 여기에 3을 곱하여 계산한다. 미국 농림부(USDA)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하여 가족구성에 따라 4 종류의 표준식단(liberal, moderate, lowest-cost, economy)을 구성하였고 그 중 절약형 식단(economy food plan)에 소요되는 식료품비를 계산한 뒤 앵겔계수의 역수를 곱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선을 최저비용형 식단(lowest-cost food plan)을 토대로 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를 빈곤가계로 정의하였다.

3. 연구모델 및 분석방법

이론에 의하면 가계는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재화와 용역을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한다. 가계가 설정한 목표와 가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소비는 개인의 경제적 복지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소득수준 뿐 아니라 개인의 욕구 및 필요와 함수관계를 가진다.¹²⁾ 이러한 함수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 = a + b_1x_1 + b_2x_2 + e$$

E = 재화의 소비

x_1 = 소득

x_2 = 개인의 욕구와 필요

여기서 모든 소비항목이 동등한 가중치를 가지고 소득의 변동에 따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면 위의 모델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만약 소득변동에 따라 소비수준을 조정해야 할 경우 일부 항목이 쉽게 조정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주어진 예산 하에서 조정 불가능한 소비항목(EU)부터 해결하고 그 나머지 소득으로 조정 가능한 소비항목(EC)에 할당할 것이다. 이것을 함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C = a + b_1x_1 + b_2x_2 + b_3EU_k + e$$

11) Walker, R.S., and Schwenk, F.N., Income and Expenditure Patterns of Consumer Units with Reference Person age 70 to 79 and 80 or Older, *Family Economic Review*, 4(1), 1991, pp. 8-13.

12) Abdel-Ghany, M. and Sharpe, D. L., 전제서.

$$i = 2 \sim n$$

$$j = n+1 \sim n+k$$

노인가계의 소비패턴이 고정예산법에 근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EC함수에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EC 회귀함수에서 보건의료비와 주거관련 공과금이 소득감소에 따라 조정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b_j 값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만약 b_j 값이 0보다 작으면 보건의료비나 주거관련 공과금이 소득감소에 따라 조정하기 어려운 항목이므로 고정예산법을 적용하여 조정이 불가능한 항목을 위해 조정 가능한 다른 항목의 지출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b_j 값이 0보다 크면 변동예산법을 적용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회귀분석을 실행하기 전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0.48이하로 나타나 EC 회귀모형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V. 분석결과

1. 식료품비

<표 1>에 전체노인가계와 빈곤노인가계를 대상으로 계절별 식료품비와 보건의료 및 주거관련 공과금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보건의료비와 주거관련 공과금은 식료품비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는 전체노인가계와 빈곤노인가계에서 b_j 값이 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두 집단 모두 소득이 감소할 경우 보건의료비가 조정하기 어려운 항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관련 공과금은 소득계층에 따라 다소 다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전체노인가계에서 봄, 여름, 가을에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겨울에는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b_j 값은 0보다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빈곤노인가계에서는 주거관련 공과금의 b_j 값이 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가계라 할지라도 소득계층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피복비

피복비도 보건의료 및 주거관련 공과금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관계의 방향은 전체

노인가계와 빈곤노인가계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노인가계에서는 보건의료비와 피복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b_j 값이 모두 0보다 작아 보건의료비의 지출을 늘려야 할 경우 피복비 지출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빈곤노인가계에서는 피복비와 보건의료비가 가을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계절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출분포를 분석해 본 결과 빈곤노인가계에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의류만을 구입하므로 소득이 감소한다면 할지라도 더 이상 줄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집단간 평균을 비교해 보면 전체노인가계의 피복비는 빈곤노인가계 보다 7배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유의할 점은 전체노인 집단에서는 표준편차의 범위가 컸으나 빈곤노인 집단에서는 표준편차의 범위가 아주 작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주거관련 공과금은 전체노인가계에서는 b_j 값이 0보다 컸으나 빈곤노인가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회귀분석 결과 : 피복비

독립변인	전체노인가계				빈곤노인가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N(가구수)	400	407	385	390	86	104	95	102
보건의료비	-(**)	-(**)	n.s.	-(*)	n.s.	n.s.	-(*)	n.s.
주거관련 공과금	+(**)	n.s.	n.s.	n.s.	n.s.	n.s.	n.s.	n.s.
소득	+(**)	+(**)	+(**)	+(**)	n.s.	+(**)	+(**)	+(*)
Constant	-118.97	15.67	-18.00	-62.32	-34.61	-5.68	26.90	8.95
R ²	0.24	0.24	0.25	0.21	0.32	0.35	0.36	0.18

*p < 0.05

**p < 0.001

주: +는 정적관계, -는 부적관계, 0은 관계없음을 나타냄.

3. 여가오락비

여가오락비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3>에 나타나 있다.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경우 보건의료비는 봄과 여름에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을과 겨울에는 여가오락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b_j 값은 0보다 작았다. 반면 난방이나 연료비 등을 포함하는 주거관련 공과금의 b_j 값은 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곤노인가계에서는 보건의료비와 주거관련 공과금이 여가오락비와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집단의

소득계층간 차이가 뚜렷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회귀분석 결과 : 여가오락비

독립변인	전체노인가계				빈곤노인가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N(가구수)	400	407	385	390	86	104	95	102
보건의료비	n.s.	n.s.	-(*)	-(*)	n.s.	n.s.	n.s.	n.s.
주거관련 공과금	n.s.	n.s.	+(*)	+(*)	n.s.	n.s.	n.s.	n.s.
소득	+(**)	+(**)	+(**)	+(**)	+(*)	+(*)	+(*)	+(*)
Constant	-143.43	-32.92	-29.00	-90.47	-66.93	-18.91	-33.01	-1.91
R ²	0.14	0.19	0.27	0.20	0.22	0.19	0.21	0.25

*p < 0.05

**p < 0.001

주: +는 정적관계, -는 부적관계, 0은 관계없음을 나타냄.

4. 빈곤노인가계와 전체노인가계의 소비지출 격차율

빈곤노인가계의 항목별 지출액을 전체노인가계의 지출액과 비교·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요약되어 있다. 집단간 격차율은 항목별 뿐 아니라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소비지출의 소득계층별 격차율은 빈곤계층에 속하는 노인가계가 전체노인에 비해 30~36% 정도이며, 소득계층별 격차율은 여름이나 가을보다 봄과 겨울에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빈곤노인가계의 보건의료비 지출수준은 전체노인가계에 비해 30~39% 정도이며, 주거관련 공과금은 66~7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비 비율은 전체노인의 1/2 정도였으나 피복비의 비율은 20~25% 그리고 여가오락비의 격차율은 10~17%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다른 소비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료품비와 주거관련 공과금의 격차는 적은 반면 피복비와 여가오락비의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빈곤노인가계와 전체노인가계의 소비지출 격차율(%)

항 목	빈	어 림	가 을	거 을
총지출	35.4	32.4	29.2	35.9
보건의료비	30.4	35.9	34.4	38.7
주거관련 공공금	69.9	64.3	62.9	65.6
식료품비	54.1	53.5	50.3	50.7
피복비	24.7	18.9	19.5	20.0
여가오락비	15.7	13.5	10.3	17.6

주: 격차율(%) = (빈곤노인가계 지출액/전체노인가계 지출액)*100.

V. 복지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미국 자료에 근거하여 노인가계의 경제적 상황변화와 욕구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다수의 노인들이 대가족 속에서 살고 있으나, 이러한 가족환경도 세대간 차이가 심화되면서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는 출산을 감소, 핵가족화, 고령화 등을 경험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행위양식도 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대가족제도의 효용성을 퇴색시키면서 노인가계 비율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핵가족화 현상이 생겨나고 그 현상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은 무언가 그 사회의 구조적 측면과 일치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미국자료를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견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가계의 소비생활에 대한 국제적 자료는 문헌의 일부로서 노인의 소비행동과 관련된 논점을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으로 확립하는 계기가 되며 이로 인해 소비행동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나 복지정책가는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어 우리 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 노인가계의 소비패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그러한 정보는 미래 노인을 위한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노인의 소비욕구와 관련된 자료와 분석결과는 소비문제에 직접 적용되어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가 효과적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고, 또 새로이 수립되는 정책의 성과 방향을 인지함으로써 미래 경제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핵심적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듯이 소비항목들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할 때 과도한 보건의료비나 주

거관련 공과금이 노인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 자체로도 문제지만 식료품이나 여가활동 등을 비롯한 타 항목의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가계가 보건의료비나 주거비로 돌릴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항목의 지출증가는 다른 항목에 대한 압박을 불러올 수고 그러한 부담은 노인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보건의료비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노인가계에 부담을 주는 항목이고 특히 이러한 문제가 빈곤노인가계와 연결될 때는 그 결과가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의 우선 순위는 당연히 보건의료 정책에 두어야 하며 그러한 정책은 소득계층을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차원에서 노인가계를 위해 지원할 때 모든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재화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보다 소득계층에 따른 필요와 욕구를 감안하는 것이 노인복지 뿐 아니라 국가적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한 정책이 될 것이다.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노인의 건강증진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미시적 노력과 더불어 노인병 전문상담 및 치료기관의 확대, 원활한 의료체계의 활성화, 그리고 의료보험의 현실적 유용성들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에게 있어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에 대한 욕구 역시 노인복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은퇴이후 노년기에 접어들면 일상생활의 주된 공간이기도 한 주거환경은 노인에게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환경에 대한 적응기능이 약화되므로 노인에게 맞는 주거환경의 필요성은 클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빈곤노인가계에서 주거관련 공과금은 식료품비를 비롯한 다른 필수재화의 소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빈곤노인들에게 주택구조 및 환경이 그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하도록 주택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료 및 난방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필수 재화의 소비가 최저수준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은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 및 핵가족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주거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노인건강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